

中 “美 ‘가상의 적’ 만들어 관계 교착”

미·중, 4개월만에 고위급 대화 “자신 이익만 챙기려 한다” 비판

중국이 4개월만의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시작부터 미국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세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6일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린 웨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대미외교 담당인 세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을 2차대전 때의 일본이나 냉전시대의 소련에 비유하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악마화해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부장은 “미국의 ‘경쟁, 협력, 대항’이라는

삼분법은 중국을 봉쇄하고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대항과 억제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협력을 말하지만 자국이 우세한 영역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공급 중단, 봉쇄와 제재에 나서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충돌도 무릅쓴다”고 비난했다. 이어 “못된 짓만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하고 반문했다.

세 부부장은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압박해온 점을 의식한 듯 “미국은 중국에 인권 문제로 이래라저러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매우 잘못된 사고와 위험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경로를 수정해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중국과 공

정하게 경쟁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세핑 부부장과 셔먼 부장관의 회담에 이어 셔먼 부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미중 양국의 대면 고위급 대화는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부장이 2+2 고위급 회담을 가진 이후 4개월 만이다.

두 나라는 그간 코로나19 기원 조사에서 신장(新疆)·홍콩·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딪혀왔다. 갈등 심화의 흐름 속에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안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노출하며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은 이번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나인 엘름스 지역에서 차량들이 많은 비로 물에 잠긴 도로를 헤쳐나가고 있다. 이날 런던 곳곳에서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많은 버스 및 승용차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런던 또 물난리...서유럽은 산불·홍수

침수 피해 속출...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에 대형 산불

올해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타격을 입은 서유럽 지역에 홍수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 폭우가 쏟아졌던 런던에는 25일(현지시간) 다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됐다.

BBC 방송과 AFP 통신에 따르면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트위터에 “긴급 구조대가 런던 전역에서 심각한 홍수와 싸우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침수 지역에서 걷거나 운전하는 것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물에 잠긴 자동차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다. 대형 병원 2곳이 침수됐고, 주택과 역 등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런던 소방대는 몇 시간 동안 300여 건의 침수 피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강수량이 10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영국 남동부 지역에 황색 뇌우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런던 남서부의 교통 요지인 킨스턴로드역 인근의 도로를 폐쇄했다. 이달

중순 폭우로 피해가 컸던 벨기에 디남 지역 등에도 다시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다.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기도 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00여명이 대피하고 수천 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7대의 항공기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길은 잡지 못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주말 사이 대형 산불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의 진화 인력이 투입됐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산불은 8.5km의 산길을 태웠다. 스페인 북부에서도 주말 사이 대형 산불이 나 1200ha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거세졌고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 인근 지역에서 여름 캠프에 와 있던 어린이 28명을 포함한 42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했다.

유럽, 델타변이 확산에 비상...프랑스 ‘백신여권’ 법제화

독일·몰타, 국경 통제 강화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린 유럽 국가들이 일부 늦춰던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유럽 전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몰타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입국을 금지했고, 독일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화된 방역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는 ‘백신 여권’을 법제화하는 분위기다. 프랑스가 선두에 섰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음식점 출입을 비롯해 문화, 여가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건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극우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의 시위에 대응해 대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이탈리아에서도 미술관 관람을 비롯해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영화관에 출입하는 등 대부분 공공 시설 이용 시 ‘백신 여권’이나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델타 변이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한층 위협적”이라며 “백신 여권은 전황이 아니라 경제 봉쇄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다. 백신이 없이는 또다시 전면 봉쇄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관광국인 그리스와 포르투갈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영국에서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발생자의 99%를 기록했고, 덴마크(94%), 이탈리아(87%), 스위스(75%), 독일(74%), 스페인(73%), 프랑스(68%) 등에서도 확실한 우세종이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프랑스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의 한 영화관 앞에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제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프랑스는 지난 21일부터 박물관과 영화관·극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강제했다. 다음 달 중에는 이 조치가 확대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올림픽 중에 더 떨어진 日 스가 지지율

닛케이 여론조사 34%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도쿄올림픽 개막 이후에도 내각 출범 후 최저치 기록을 이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계열사인 TV 도쿄와 함께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98명(유효 답변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26일 보도했다. 지난달 여론조사 대비 9%포인트

트나 하락해 작년 9월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았다.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34%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7년 8개월 지속된 직전 아베 신조 내각 때 최저 지지율 38%보다 4%포인트 낮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57%로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53%는 “지도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38%로 6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추모공간 vs 새건물’

美 아파트 붕괴현장 수색작업 마무리... 용도 놓고 대립

9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수색 작업이 끝난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향후 용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비극의 사고 현장을 추모 장소로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새 건물을 지어 다시 들어가 살겠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일부 희생자 가족은 사고 부지에 새 아파트 건물 대신 추모 장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고로 누이를 잃은 마린 랭스필드는 “땅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다. 땅은 매각돼야 하고 우리 보상 받아야 한다”며 단지 부지를 카운티 등 정부 기

관이 매입해 희생자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게 아파트를 안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 새집을 짓고 다시 들어가 살길 원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붕괴 아파트 소유주들은 최근 법원에 새 건물을 짓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CNN은 “해변의 주거용 부동산은 아자나무가 거리에 즐비한 이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며 사고 부지 용도를 놓고 의견들이 분열돼 있다고 전했다.

찰스 벡터 서프사이드 시장은 “일부는 추모 장소를 원하지만, 일부 소유주는 되돌아가길 원한다”며 “양측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